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 재착공

전주시, 15일~4월 말까지 충경로사거리~다가교 구간 차로 축소 운영 우회 요구돼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충경로를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광장 형태의 도로로 재정비하는 공사가 재개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번 도로 재포장 구간인 충경로사거리부터 다가교 사거리 구간인 경우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도로로 우회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동절기를 맞아 그간 중지됐던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오는 15일부터 재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충경로를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없는 광장 형태의 도로로 조성하고, 차도를 기존 아스콘

에 비해 차열 효과가 뛰어나고 미관이 우수한 콘크리트블록으로 포장해 기존 도로와는 다른 특색있는 도로로 새 단장하고 있다.

다만, 보도와 차도를 포장하는 공사의 특성상 공사 기간 중에는 교통이 일부 제한될 예정으로, 주변 상인과 전주시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충경로 이용 시 큰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공사 재개일인 오는 15일부터 4월 말까지는 충경로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의 차도 포장이 예정돼 있다. 이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현행 4개 차로가 2개 차로로 축소 운영될 예정이어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공사 기간 중 인근 다른 도로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도심 환경이 개선돼 그동안 한옥마을에 국한된 관광 효과가 구도심까지 연결돼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빠른 시일 내 작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차도 포장 기간에는 많은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우회도로를 이용해주시고, 공사로 인한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치매환자 안전한 이동 돕는다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 송영 교통서비스' 운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치매안심센터까지 거리가 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 송영 교통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송영 교통서비스는 경증치매환자가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안전하고 친절하게 집과 센터를 오갈 수 있다. 또, 안전한 차량 탑승을 위해 승하차 도우미가 동승한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들이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센터 인지재



송영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가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안전하고 친절하게 집과 센터를 오갈 수 있다. 또, 안전한 차량 탑승을 위해 승하차 도우미가 동승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안심

송영 교통서비스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해 치매환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외에도 돌봄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하고 있다.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가족은 누구나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치매안심센터(063-281-6238~9, 62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한옥마을 '우리고전 배움터' 수강생 모집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한국고전번역원(원장 김연중)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분원장 김건우)은 오는 18일부터 '2024년 1학기 우리고전 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우리고전 배움터'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한문 고전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1학기 고전 강좌는 △월요일 오전 한시반(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수요일 평지반(최상근 성균관대 강

사) △수요일 논어반(김기현 전북대 명예교수) △수요일 명심보감반(안성은,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담당자) △목요일 오전 문집반(선종순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교수)이 14강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예체험반(윤백일 서예가)도 운영되며, 방학 기간 중에는 방과후 한문교사를 위한 강좌도 마련된다.

권인숙 전주시 평생학습관장은 "전

주한옥마을이 전주의 전통 문화관광의 얼굴인 만큼 시민들에게 한문 고전을 재미있고 친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한옥마을에 우리 고전을 배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은 교육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한문 고전과 문헌을 정리·번역할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한문 고전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시민 인문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고전 배움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3-525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자동차 온실가스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고'

전주시, 18~29일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를 막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도 자동차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 제도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 참여자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주시지역의 올해 모집 규모는 1487대 정도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으로, 소유자 기준 1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수소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 중 자동차 탄

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포함해 등록·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시민은 오는 10월까지 약 8개월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전주시민 1054명 중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619명에게 약 4412만 원의 인센티브(1인당 평균 7만1270원)가 지급됐다. 이들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얻어낸 온실가스 감축량은 268t으로, 30년생 소나무 약 3만 그루가 흡수한 온실가스와 맞먹는다.

30년생 소나무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약 9.1kg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세대주(세대 구성원)와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개인은 연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김용삼 전주시 북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현금으로 혜택을 돌려받는 이 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도로명판 확충으로 길 찾기 쉬워진다

전주시, 상반기 1억2000만원 투입 도로명판 368개 확충 예정



전주시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확충기로 했다.

전주시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총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도로명판이 부족한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218개와 차량용 도로명판 150개 등 총 368개의 도로명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중순까지 도로명판의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주소정보보시실이 부족한 가라내로 등 167개 도로구간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차량용 도로명판은 운행 중 보조기기의 사용 없이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다양한 계층이 쉽게 길 찾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소정보보시실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선도로 및 교차로 등에 총 1만4,505개 도로명판을 설치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도로명판이 확충되면 시민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방문객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